

입학사정관 선발 대폭 확대 수도권 大 진출 크게 늘 듯

현장서 선발... 농·산·어촌 학생 유리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해 전남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에선 2009년도 입시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10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11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 3천772명의 23.5%에 해당하는 88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80명)의 5배에 가까운 숫자다.

한국의외대 올해 입시에서 수시 2학기 모집 5개 특별전형 425명 전원과 정시 모집 정원의 특별전형 253명 등 678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또 한양대는 입학정원 5천201명의 19.8%인 1천311명을, 동국대는 올해 모집인원 2천993명 중 509명(17%)을, 성균관대는 수시 1차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정원(626명)을 각각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전년도 20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

▲입학사정관 제도=수험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뽑는 제도로, 전문가들이 고교 특성과 수험생의 학교 생활·성적·장래성 등을 보고 현장조사를 해서 뽑는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를 비롯해 16개 대학이 도입했다.

로 선발했던 숙명여대의 경우 올해는 전년도의 25배가 넘는 506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정원 외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서울대는 올해 입시에서 전년도 118명보다 22명 늘어난 14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도시 학생보다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다.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선발제, 정시모집의 농어촌특별전형제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 등 3가지 전형으로 뽑는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보다는 학습 태도와 열정, 인성 등 응시자의 잠재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선발 규모

대학명	입학사정관 선발인원(명)	전체 모집정원(명)	비율 (%)
건국대	350	3,350	10.4
경희대	365	3,516	10.4
고려대	886	3,772	23.5
동국대	509	2,993	17
서경대	510	1,850(약)	27.5
서울대	140(정원외)	3,114(정원내)	
서울시립대	143	1,879	7.6
성균관대	626	3,599	17.4
숙명여대	506	2,278	22.2
카이스트	150	850(약)	15~20
포스텍	300	300	100
한국외대	678	3,651	18.6
한양대	1,031	5,021	19.8

특히 입학사정관은 응시 수험생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봉사활동 내용,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이 서류와 맞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첫 시행된 2009년도 입시에선 광경고 2명, 능주고 3명, 장성고 2명, 담양고 1명, 강진고 2명 등 전남에서만 모두 10명이 이 제도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사업비 3억9천여만원 투입

한국전쟁 때 소실

한국전쟁 때 소실됐던 증심사 사천왕문이 복원된다.

12일 광주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증심사 사천왕문(四天王門) 복원 및 주변정비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사천왕문 건립 위치에 대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토대로 복원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전쟁 때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진 사천왕문이 증심사측이 건립위치를 제시한 증심사 일주문 인근에 위치가 다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구청과 증심사는 문화재위

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뒤 오는 3월 중순부터 복원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모두 3억9천200만원(구비 3억5천만원·증심사 42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 복원이 계획된 사천왕문과 관련된 고증 자료들이 없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지 관심을 모은다.

통일 신라시대 사찰인 증심사의 사천왕문은 지난 1609년에 세워진 정문 누각 '취백루(翠柏樓)' 1층에 사천왕 4기를 두고 국전쟁 때 불에 탄 것으로 소실됐고 이후 1998년 취백루는 복원돼 현재 법당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천왕문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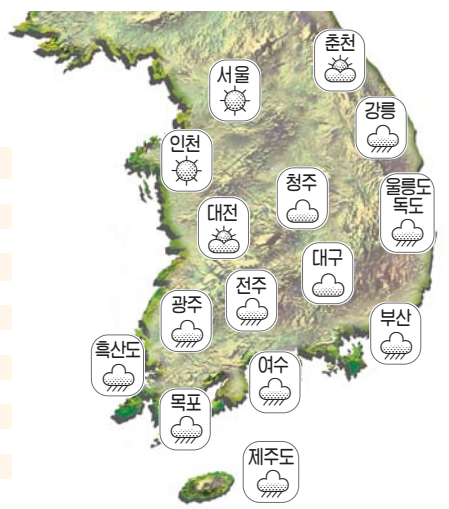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6분 해질 21시 06분 달돋이 18시 38분 달질 07시 29분

반가운 '단비'

비온 뒤 개겠다.

광주	흐리고 비	12/13°C
목포	흐리고 비	11/12°C
여수	흐리고 비	11/12°C
완도	흐리고 비	10/12°C
구례	흐리고 비	12/13°C
해남	흐리고 비	10/13°C
장흥	흐리고 비	10/13°C
곡성	흐리고 비	12/13°C
순천	흐리고 비	12/14°C
영광	흐리고 비	11/12°C
진도	흐리고 비	10/13°C
전주	흐리고 비	11/12°C
남원	흐리고 비	11/12°C
옥산도	흐리고 비	9/10°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목포 03:32	08:3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15:42	20:5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여수 10:19	04:1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22:45	16:19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4	-2/13	3/16	5/18	8/16	7/16

/ 경찰청장 취임 인터뷰 /

“강절도 예방·검거에 혼신”

김남성 광주청장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민생치안과 범죄사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남성(53) 광주지방경찰청장은 12일 취임사에서 “불황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침해형 범죄와 지능형 경제사범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생치안 확보를 통해 경제 한파에 따른 각종 치안부담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치안에도 고객 만족 개념을 도입해 주민 만족과 현장중심의 치안행정을 펼쳐겠다”며 “조직폭력이나 고리사채 등 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는 물론, 치안의 핵심인 강절도 범죄 등에 대한 예방과 검거에도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생활고와 실업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이 만연됨에 따라 ‘무동기성 범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요구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찰의 위상

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활력 있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 경찰들의 효율성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가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는 기회도 가급적 자주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1년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혁신 기획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최정호기자 golee@kwangju.co.kr

“서민 생계침해 사범 엄단”

유근섭 전남청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서민들의 생계침해형 사범을 엄단하고 부정부패 등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신임 유근섭(55)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2일 열린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율·창의·화합 등을 바탕으로 한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역할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은 본래 감옥이나 통제가 없이 스스로 할 때 제대로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청장은 “최근 경찰조직이 성매매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각종 비리문제로 인해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부패는 ‘공공의 적’이고 ‘조직의 적’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또 “부패 척결은 조직원들 모두가 ‘조직의 적’을 섬멸하듯이 해야 한다”며 “사안에 따

라서는 관리자의 책임도 엄격하게 묻겠다”고 밝혀 비리 엄단의지를 분명히 했다.

끝으로 유 청장은 “조직에서 자율을 강조하다 보면 ‘무인승차’를 하려는 사람도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지구대, 형사, 교통 모든 분야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투신,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미쓰비시는 사죄·배상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2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중도 등에 시달리게 한 군수업체 미쓰비시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위정환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외국인 유학생 U대회 유치 기원 축제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축제를 벌인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달 4

일 호남대 대운동장에서 U대회 유치 홍보 지원을 위한 ‘광주·전남 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학생, 교직원 2천여명과 박광대 광주시장, 광주 중국

영사, 법무부가 위촉한 사회통합지원위원 등이 참석한다.

유학생들은 이날 2천15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U대회 유치를 기원하고 한국 학생, 교직원들과의 단체 놀이기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진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구입시 특별할인 30%!!
에너지 할부비용으로 할부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다우 빌리시시스템

062) 252-2900

아이엘리시아
상품권 판매

062) 671-1199